

BIFAN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장르를 만드는 배우

전도연

INTERVIEW 스페인 장르영화의 거장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감독

BIFAN SKETCH 잔디광장에서 즐기는 BIFAN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대한민국~

행복의 날까지 ~

힘내라 코리아~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당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찾아와도 NH농협은행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NH농협은행이 변함없이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100% 국내자본은행 | 4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too
cool
for
school
LONDON · NEW YORK



BACCHIO
BRACCHIO



Made in Italy

다이너플라츠 바치오브라키오

EVENT

- 10:00 - VR 체험존
부천시의회 갤러리
- 11:00 - 전시 '전도연, 17개의 우주'
부천시청 어울마당 입구
- 14:00 메이드 인 아시아 포럼 (B.I.G)
고려호텔 4층
- 15:00 스페셜토크 '감독, 전도연을 만나다'
고려호텔 4층
- 15:30 스페셜토크 '흥기선 감독 추모 특별 토크 - 독립영화의 <파랑새>를 찾아서'
판타스틱큐브 <수리세>, <파랑새> 상영 후 진행
- 16:00 아시아공동제작 활성화 포럼 (B.I.G)
고려호텔 4층
- 19:00 B.I.G 개막리셉션 + 아시아 영화의 밤
고려호텔 3층

표사진 백중현

STAFF

- 발행인 배경록 김중환
- 제작총괄 장인숙
- 편집장 주성철
- 취재팀장 이화정
- 취재 김성훈 김현수 임수연
- 객원기자 곽민혜
- 사진 백중현
- 사진객원 박종덕
- 디자인 김윤희 신은지
- 제작 이준용
- 인쇄 (주)성전기획
-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 (부천시청 별관)
- 전화 032-327-6313
- 씨네21 데일리사무실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층 어울마당 데일리 사무국
- 씨네21 주식회사 www.cine21.com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11 SK V1센터 E동 1102호
- 전화 02-6377-0500
- 팩스 02-6377-0505

<씨네21> 정기구독문의 02-2013-1300



최용배 집행위원장, 배우 전도연, 정성일 평론가(왼쪽부터).

PHOTO NEWS
특별전 '전도연에 접속하다' 기자회견이 14일 오후2시 고려호텔3층에서 열렸다. 배우 전도연은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이고 싶다"며 "이번 기회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하고 싶다"고 했다. 사진 백중현



메가토크 '접속하라 전도연'이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렸다.

전도연과의 흥미진진한 접속

메가토크 '접속하라 전도연'이 14일 오후7시30분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렸다. 영화 <밀양> 상영 후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배우 전도연과 이창동 감독이 참석하고, 김혜리 씨네21 기자가 사회를 맡았다. 관객들과 영화를 함께 본 전도연은 "이전까지는 감독에게 정답을 물으며 연기했는데, 이창동 감독님은 명확한 답을 안 줘서 괴로웠다"며 "당시에는 너무 힘들게 찍은 탓인지 영화가 재밌다는 생각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10년 만에 보니 재밌어서 깜짝 놀랐다"고 이창동 감독은 "전도연처럼 강인한 면과 연약한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배우를 지금껏 만나지 못했다"며 "양극단을 오갈 수 있는 면이 신애라는 캐릭터와도 잘 맞았다"고 캐스팅 이유를 밝혔다. 감정 연기가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이 작품 끝나면 감독님과 다시 안 만날 사이라고 생각했다"며 "영화가 안 좋지만 해보라"고 이를 갈았다는 배우 전도연의 이야기도 웃음을 자아냈다. 김혜리 기사는 "<밀양>은 '전도연은 이런 배우'라는 프레임 자체를 부수는 작품"이라며 "전도연이란 나라의 넓이는 절대 짐작할 수 없겠다는 인상을 남겼다"고 <밀양>이 전도연의 필모그래피에서 갖는 의미를 짚었다. 글 곽민혜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SF, 한국 영화산업과 만나다



사회자 박상준, 웹툰 작가 윤태호, 소설가 장강명(왼쪽부터).

한국에서도 <에이리언> 시리즈나 <컨택트>(2016, 드니 빌뇌브 감독) 같은 걸출한 SF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만화, 소설 등 영역에서 SF 판타지 장르 영화의 원천 콘텐츠 발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SF 판타스틱 포럼'이 열렸다. 7월14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웹툰 작가 윤태호와 평소 SF 장르 마니아로 알려진 소설가 장강명이 참석해 SF 장르물의 영상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윤태호 작가가 연재를 시작한 <오리진>은 교양·학습만화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장르는 SF다. 윤태호 작가는 "지식이나 정보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서사와의 접목을 떠올렸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또한 "웹툰을 그릴 때 영화문법을 고려하면서 만들지는 않는다"며 "가령 웹툰 <이끼>에서 영화적 연출이라는 평을 들었던 장면도 실제 영화의 영역으로 가면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고 영상화 시 염두에 두어야 할 형식의 차이를 설명했다. 장강명 작가는 "영화와 달리, 소설을 쓸 때는 타깃 층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원작을 영상화 할 경우 제작비의 규모와 한국이라는 배경이 주는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더 많이 고민 중이다"라며 창작자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영화계 및 SF계 관계자들은 포럼이 끝난 후 네트워크 교류 파티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임수연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리플레이, 전도연의 20년

배우 전도연의 연기 인생을 돌아보는 전시 '전도연, 17개의 우주'가 부천시청 어울마당 입구에서 열린다. 14일 오후4시50분에는 전시의 오프닝을 겸하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배우 전도연과 이창동 감독, 정지영 조직위원장, 최용배 집행위원장, 김만수 부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도연 출연작 17편의 스틸컷과 포스터, 스페셜 영상을 공개한다. 전시는 23일까지 계속된다.



시작부터 매진임박, BIFAN 기념품

영화는 마음에, 기념품은 주머니에 담아가자. 올해 BIFAN을 상징하는 '환상세포'를 활용한 기념품이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기념품샵은 부천시청, CGV부천과 CGV부천역 6층, 송내 어울마당 4층 솔안아트홀에서 운영 중이다. 판타시 멤버와 비판홀릭 카드 소지자는 1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역대 영화제 최고 히트상품을 모아놓은 랜덤박스도 가격대비 최고의 굿즈 패키지다.



BIFAN人

최성윤 기술팀장

영화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기술팀 서른 명을 이끌고 상영작 289편을 수급 받아 검수한 뒤 영화제가 시작되면 상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부천에서 일한지 얼마나 됐나.
2004년 기술팀원으로 활동했고, 2013년 팀장으로 합류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부산, 전주까지 포함하면 영화제 경력에 15년 가까이 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320여 편이 상영된 지난해 영화제. 역대 가장 많은 작품이 초청됐다. 운이 좋게도 단 한 번도 상영사고 없이 무사히 치렀다.
올해 목표는.
사고 안 나는 것. 전화 받기가 두렵다. (웃음) 한시의 긴장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글 김성훈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말. 말. 말.

"그래놓고 시나리오 안 주더라." (웃음)
→ 특별전 '전도연에 접속하다' 기자회견에서 배우 전도연, 봉준호 감독이 자신에 대해 극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독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더라. 일단 하면 다 '감독님'이라고 부르더라."
→ 단편 <오심>을 연출한 차인표. GV에서, 감독 지망생들에게 너무 망설이지 말고 빨리 시작하라고 격려하며.

"한국에서는 소설가가 인세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SF 판타스틱 포럼'에서 소설가 장강명. 영상물로 제작되는 2차 판권 수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광기와 욕망, 호러와 블랙 코미디, 멜로와 스릴러가 뒤섞여 기괴한 장르적 에너지를 뽐내며 영화를 만들어온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감독이 BIFAN 특별전 상영 행사 참석 차, 부천을 방문했다. 비디오 대여점 시절, 소수의 컬트팬들로부터 열광적 지지를 받았던 <액션 무탕트>(1993), <아수의 날>(1995) 등의 장르 영화를 꾸준히 만들던 그는 2010년 <광대를 위한 슬픈 발라드>로 베니스국제영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하며 일관되게 지독한 작품 세계를 예술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특정 장르를 넘어 영화 매체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쏟아낸 그와의 이야기를 전한다. 글 김현수 · 사진 백중현

“영화만 찍다가 죽고 싶다.”

BIFAN 특별전 ‘판타스틱 영화의 거장’에 초청된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감독

이번 특별전에서는 초기 단편인 <카테일 살인마>(1991)와 이를 모티브 삼아 만든 대표작 <아수의 날>, 2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아수의 후예>(2016)가 함께 묶여 상영한다. 감독 본인에게도 <아수의 날>이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아수의 날>은 많은 기쁨과 성공을 가져다 준 영화다. 게다가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유머가 나의 작품관을 규정해준 측면도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수의 날>에만 얽매어 있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른 좋은 영화도 많이 만들었으니까. (웃음) <아수의 날>과 가장 최근작 <더 바>(2016)의 마지막 장면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온갖 사건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에서 <아수의 날>은 구원의 역사적 풍자를, <더 바>는 쓸쓸한 시스템의 비판을 보여주는 것 같다.

듣고 보니 하비에르 바르뎀 주연의 <프레디타>(1997)의 결말도 비슷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주인공이 정체되어 있는 걸 좋아한다. 성장의 여지는 둘째 치고 그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세계관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좋아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결말에 담으려고 했다.

호러와 스릴러, 블랙 코미디 등 장르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내가 처음으로 본 영화가 <킹콩>(1933)이었고, 두 번째로 본 영화가 <고지라>(1954)다. 언젠가 꼭 몬스터 영화를 만들고 싶은 정도로 이 영화들을 좋아한다. 처음 사 본 잡지는 호러 영화 잡지였다. 그 잡지에서 기괴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토드 브라운의 <프릭스>(1932) 스틸컷을 보고 충격에 사로잡혔던 기억도 있다. 그 때부터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하나의 장르 속성에 정통한 영화보다는 매번 변주하면서 규정짓기 어려운 영화를 만든다.

매 영화마다 장르적 의도를 갖고 출발하지 않는다. 먼저 스토리텔링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의도로 영화를 찍으려 한다. 요즘 관객들은 성숙하다. 장르에 얽매이지 않아도 충분히 받아들일 줄 안다.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영화를 하나의 장르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선배들의 영향도 받은 것 같다.

음료수 미린다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는 <카테일 살인마>와 스위스 음료수 슈웬스 간판에서 액션이 벌어지는 <아수의 날>을 이어서 보니, 음료수에 대한 흥미로운 디테일이 보이더라. 재미있는 농담인가.

내 개인 취향이다. (웃음) 스페인에서는 햄치즈 샌드위치와 미린다 음료수를 마시는 행위는 행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는 미린다를 구하기도 어려워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집트 피라미드만큼이나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런 디테일 자체가 내 작가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한데, 중요한 요소를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은근슬쩍 집어넣거나 혹은 정말 사소해서 하찮아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즐긴다.

<800블렛>(2002)의 대사 “인생을 살다가 뭔가 잘 안 풀리더라도 그 상황을 그냥 즐겨라”처럼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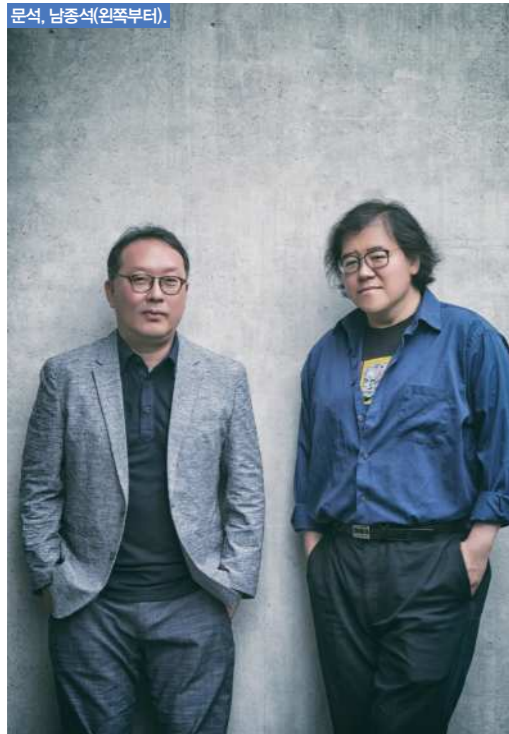
<800블렛>은 평생 영화만 바라보며 살던 영화인들에 관한 찬사다. 영화인들은 영화 안에서 살아가려 노력한다. 모든 영화인들이 영화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 같다. 나는 24시간 영화만 생각한다. 지금도 주변 모든 것이 시퀀스와 캐릭터로 보인다. 나 역시 영화만 찍다가 죽고 싶다.



“이제야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었다더라.”

〈소울 메이트〉 중국상 감독

“진가신 감독에게 연락이 왔다. 너한테 잘 어울릴 작품이 있다고.” 중국상 감독은 〈소울 메이트〉의 원작(안니 바오베이 작가)을 그렇게 처음 접했다. 소설을 읽자마자 자신이 찾던 작품임을 직감했다. 이번 작품은 소꿉친구인 안생과 칠월의 안타까운 연대기다. 우정과 사랑 사이를 오가는 미묘하고 세심한 감정선이 일품. “할머니와 엄마의 친구들이 늘 우리집에 모여서 마작을 하거나 술잔을 나눴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선지 여성만의 독특하고 예민한 감정을 잘 알게 됐다. “네 명의 여성 작가가 협업한 각본도 한몫했다. “두 명은 안생 편에서, 두 명은 칠월 편에서 끊임없이 토론하며 방향을 잡더라. 그래서 늘 그들의 선택을 믿었다.” 각각 안생과 칠월을 연기한 배우 저우동위와 마사순도 강렬한 연기로 입체적인 캐릭터를 완성했다. “출연자를 봤을 때는 두 사람을 반대 역할에 캐스팅하려고 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이번 영화 속 이미지와 더 가까웠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상 감독은 홍콩 배우 증지위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반응? 이제야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었다고.” (웃음) 이번 영화로 그는 아버지와 홍콩 금마장 영화제 수상 후보에 함께 오를 만큼 든든한 동료가 됐다. 오로지 혼자 힘으로 이뤄낸 그의 성장은 〈소울 메이트〉의 완성도가 증명한다. 글 객민해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문석, 남종석(왼쪽부터).

B.I.G을 책임지는 막강 파워

남종석 · 문석 산업 프로그래머

“부천의 살아있는 화석 같은 존재죠.” 남종석 산업 프로그래머는 10년 넘게 아시아 판타스틱 영화 제작네트워크(NAFF)를 책임져왔고, 그를 이렇게 소개한 문석 산업 프로그래머는 한국 영화 산업 지원, 뉴미디어 부문을 담당하며 올해부터 합류했다. 두 사람은 기존의 NAFF를 확대시켜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인더스트리 프로그램(B.I.G)을 책임진다. BIFAN의 산 증인에 새로운 인력까지 함께 한 만큼 올해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두 사람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문화 정책의 새 판을 짜는 국면”인 만큼 ‘한국영화 정책 포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이어서 중국과 꾸준히 교류해온 영화제의 역사가 반영된 ‘아시아 공동제작 활성화 포럼’에 대한 관심도 부탁했다. “사드의 여파로 중국은 일단 보류를 한다고 해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모두 기회가 열려 있는 땅이다.” 아시아 각국의 흥행 작품을 모아 상영하고 제작자들을 초청해 제작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베스트 오브 아시아’는 작년부터 미리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해 전년보다 내용을 보강하기도 했다. 남종석 · 문석 산업 프로그래머는 추후 뉴미디어 부문에서 “넷플릭스 특별전을 여는 것도 제대로 추진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 임수연 · 사진 백종현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역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깨끗한
이슬
먹자





항문남녀

Assholes

피터백 | 미국 | 2016년 | 74분 | 금지구역

7.15 BST5 20:30
7.19 BST2 20:00

알고 있다. 이 제목이 어떤 관객에게는 초대장처럼 느껴지리라 사실을. 하지만 제발 이 영화만은 지나치길. 우리는 더 곱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강력해(!) 경험이 되리라 사실만은 애써 부정하지 않겠다. 한동안 맑은 정신을 되찾기는 어렵겠지만 말이다. 그러니 정신 건강을 위해 이 지면을 떠나시길. 왜냐하면, 앞으로는 쪽 역겨운 것들에 대해서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바로 동구멍에 대해서!

영화는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에이다가 상담사에게 자신의 문란함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아무도 자신과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며,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어필한다. 한편, 이 상담소를 출입하는 또 다른 주인공 아론이 있다. 그는 (아, 이 순간이 와버렸다) 동구멍에 중독되어있다. 단단한 근육과 꽃처럼 활짝 핀 모양이 좋단다. 상담소에서 마주친 두 영혼은 자석처럼 이끌려 연인이 된다. 이때부터 마약과 섹스, 서로

의 '깊은 곳'을 탐닉하는 두 사람의 '지저분한' 로맨스가 시작된다. 특별한 성적 취향을 가진 두 성인의 은밀한 연애사라면 그런대로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두 사람이 헤르페스(수포가 맺히는 피부 질환. 접촉으로 전염된다)가 잔뜩 생긴 얼굴로 영키는 광경을 관객이 지켜봐야 한다는 데 있다. 노랄게 익은 물집과 축축하게 섞이는 혀. 인내심의 극한을 실험하는 이런 장면은 아론이 에이다 항문에 주먹을 꽂는 것으로 정점을 찍는다. (이 장면은 에이다의 괴로운 표정으로 대신하니 안심하길) 그의 항문에서는 오물을 뒤집어 쓴 할머니가 나오는데, 두 사람의 환각인지 그 정체는 확실치 않다.

그래서 그럴듯한 메시지가 무엇이나고? 두 주인공은 에이다의 오빠이자, 아론의 친구인 아담에게 모종의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나 두 주인공의 행각에 이 콤플렉스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어차피 이 영화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곽민해 객원기자

■ 피트 백 감독이 아담 역할로 출연한다. 에이다와 아들 남매의 부모로 등장하는 배우도 감독의 실제 가족.



몬 몬 몬 몬스터

Mon Mon Mon Monsters

구파도 | 대만 | 2017년 | 112분

부천 초이스: 장편

7.15 HYU6 21:00
7.17 HYU4 14:00
7.21 BST3 20:00

아심한 밤,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 앞에 기괴한 두 소녀가 등장한다. 이들은 남자의 시체를 먹어치운 뒤 유유히 자취를 감춘다. 인간일까, 좀비일까. 관객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운 채로, 카메라는 한 교실을 비춘다. 이 학급의 왕따 린은 자신을 따돌린 무리와 봉사 활동에 갔다가 괴물을 목격한 다. 그중 하나를 생포한 이들은 아지트에 괴물을 가두고 학대한다. 사람을 먹는 괴물과, 괴물보다 더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 영화는 진짜 괴물이 어느 쪽인지 묻는다. 린은 괴물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괴물이 없으면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까봐 폭력에 가담한다. 가해자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모종의 안도감과, 자신을 닮은 괴물에게 느끼는 연민 사이. 그는 소수가 되기 싫은 보통 사람의 얼굴을 대변한다. 이틀 틈에서 오히려 더 '인간답게' 보이는 쪽은 괴물이란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곽민해 객원기자



려행

Ryeohaeng

임흥순 | 한국 | 2016년 | 86분 |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7.15 HYU3 18:30
7.18 HYU3 14:00

제주 4·3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제주도 할머니(〈비념〉(2012)), 40여년 전 구로공단에서 청춘을 바쳐야 했던 여공들(〈위로공단〉(2014)) 등 한국 현대사에서 희생된 여성들은 임흥순 감독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화두다. 그의 신작 〈려행〉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온 여성들의 과거와 현재를 담아낸 작품이다. 이윤서, 강유진, 양수혜, 김미경, 한영란, 김광옥, 김경주 등 탈북 여성들은 탈북 시기도, 탈북 이유도,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고, 자본주의 사회는 그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같다. 특히 초저녁에 전기가 끊겨 마을이 어두워지면 집집마다 돌아가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앙코르를 외치던 일화는 애잔하다. 현실과 판타지, 인터뷰와 극을 오가며, 우리가 잊혀진 여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작품이다.

김성훈

하이퍼수니아

Hypersomnia

가브리엘 그리에코 | 아르헨티나 | 2016년 | 82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장편

7.15 BST3 15:30
7.16 HYU6 18:00
7.23 BST4 20:00

배우를 꿈꾸는 밀레나(아밀라 사우드)는 인신매매를 소재로 한 연극의 주인공으로 발탁된다. 그러나 연기 연습 중에 눈을 감았다 뜨면, 그의 몸은 다른 세계에 있다. 랄리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인신매매 소굴에 납치된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 세계의 정체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은 채, 영화는 한동안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환상에 빠졌다 깨어나는 밀레나의 혼란을 그린다.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은 그가 감금되어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부터다. 마침내 랄리가 실제 현실에서 실종된 여성이란 것이 드러나며, 끔찍한 범죄 소굴은 환상에서 현실로 탈바꿈한다. 수면 장애의 일종으로, 일상생활 중에 찾아오는 과도한 졸음이 주요 증상인 '하이퍼수니아'. 영화는 이 장치를 활용해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판타지를 완성한다. 이 판타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결국 아르헨티나 인신매매의 끔찍한 실상이다.

곽민해 객원기자



〈접속〉

‘전도연’이라는 장르와의 만남



데뷔 20주년 기념 특별전
‘전도연에 접속하다’에서 출연작 17편 상영해

김보연 영화평론가

전도연의 연기를 동시대에 실시간으로 보는 건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전도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연기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가 ‘바로 지금’ 어떤 것을 새롭게 보여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내 확신이 맞는다면, 전도연은 이전에 보여준 것과 같은 연기를 반복해서 보여준 적이 없다. 그래서 전도연의 신작을 볼 때는 항상 긴장감을 느낀다.

1973년에 태어났고, 1993년 TV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으로 연기를 시작한 전도연은 계속해서 꾸준한 활동을 펼치며 다양한 작품에서 자신만의 연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올해 부천판타스틱영화제는 ‘전도연에 접속하다’란 제목과 함께 전도연의 특별전을 준비했다. 〈접속〉(1997)부터 〈약속〉(1998), 〈해피 엔드〉(1999), 〈피도 눈물도 없이〉(2002), 〈너는 내 운명〉(2005), 〈밀양〉(2007), 〈하녀〉(2010), 〈무뢰한〉(2015), 〈남과 여〉(2016)까지 전도연의 대표작 17편을 상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배우 전도연의 연기 세계가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에 대한 충실한 기록인 셈이다.



〈밀양〉



〈멋진 하루〉

동시대적인 감수성을 더한 일상의 연기

전도연의 영화 데뷔작은 장윤현 감독의 1997년 작품 〈접속〉이다. 1990년대는 한국영화가 이 새로운 감수성의 옷을 입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였다. 당시 신인 감독들은 도시, 특히 서울의 변모한 풍경을 (경이의 시선이 아닌) 일상의 공간으로 기록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지 그려려 했다. 이런 흐름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 〈접속〉의 주인공이 바로 전도연이었다. 이 작품에서 전도연은 두 가지 성취를 보여준다. 첫 번째로 그녀는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로는 시대적으로 새로운 연기 스타일을 제시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영화에서 전도연은 ‘오바’하지 않는다. 그녀는 일상의 톤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조용히 화를 내며, 조심스럽게 기뻐한다. 이는 분명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연기 스타일이었다. 물론 연기에 대한 이런 접근은 전도연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계의 새로운 창작 풍토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접속〉 이후 전도연의 연기는 훌륭한 참고 대상으로 남았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에 〈접속〉이 있었다면 2000년대에는 〈멋진 하루〉(이윤기) 희수가 있다. 헤어졌던 남자친구 병운(하정우)과 하루 동안 서울 이곳저곳을 활보하며 웃고 우는 영화 속 전도연의 모습은, 신기하게도, 그 시대의 도시 사람들에 대한 압축적인 기록처럼 보인다. 영화 속 전도연은 피곤해하며 자주 짜증을 낸다. 동시에 작은 농담에도 싱거운 웃음을 흘리고, 아무 것도 아닌 일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 복잡한 뉘앙스를 거의 완벽하게 해석한 전도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이 그 안에 녹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희수라는 독립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의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는 것. 전도연은 그렇게 자신이 가장 동시대적인 공기를 머금은 배우임을 증명한다.

전도연이 만들어낸 설득력

전도연은 파격적인 연기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했다. 정지우 감독의 〈해피 엔드〉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를 연기한 전도연은 남편에 대한 헌신은 물론 자식에 대한 모성애도 거부하는 캐릭터를 연기한다. 이 작품에서 전도연의 연기가 놀라운 건 그녀가 단지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거부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캐릭터마저도 설득력 있게 그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과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권태로운 일상에 저항하려하며, 모성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성육을 가진 개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한다. 전도연의 이와 같은 대담한 연기는 관객들이 그녀에게 동정심까지 갖도록 유도한다. 전도연의 파격을 이야기하며 〈피도 눈물도 없이〉(류승완, 2002)를 빼놓을 수 없다. 류승

완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유일하게 여성 주인공이 전면에 등장하기도 한 이 작품은 액션 영화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전도연은 무술의 고수나 살인의 전문가 같은 장르적 페티쉬의 대상이 아니다. 그녀는 맞으면 피를 흘리는 약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여성이며, 눈앞에 닥친 신체적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배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객은 전도연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절대 싸움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전도연이 만들어 낸 이 ‘든든함’이 영화에 강력한 정서적 효과를 불러넣는다. 여기엔 문자 그대로 몸을 바닥에 내던지는 전도연의 강렬한 연기가 있다.

전도연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며

나이가 전도연은 연기를 통해 작품의 성격 자체를 결정하는 힘을 가진 드문 배우기도 하다. 특히 〈밀양〉과 〈무뢰한〉이 이같은 배우의 힘을 잘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영화가 ‘전도연의 것’이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전도연의 캐릭터와 그녀의 연기는 두 작품의 텍스트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밀양〉에서 전도연은 절대자의 부재 때문에 끝없는 절망에 빠진 후 다시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는 인물을 맡았으며, 그 짐작할 수 없는 절망과 희망의 크기를 오롯이 자신의 연기로 구현한다. 〈무뢰한〉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도연이 연기한 혜경은 남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강해지기도, 약해지기도 하는 다층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전도연은 이 강함-약함 그래프의 진폭을 최대한 크게 만든 뒤 유연하게 그 사이를 움직이며 〈무뢰한〉의 정서를 능동적으로 조율한다. 우리는 〈무뢰한〉의 혜경이 가장 강할 때 그녀의 약함을 함께 보며, 그녀가 가장 약해졌을 때 그녀가 강했던 때를 동시에 떠올린다. 〈무뢰한〉의 대책없이 서글픈 정서는 결국 이러한 전도연의 연기로부터 만들어진다. 아직까지 전도연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모습이 더 많으며, 우리 역시 전도연의 이미지를 새로 갱신해야 할 것이다. 그 순간을 늘, 기다린다.

Let the Fantasia Begin!



©PARK JONG DEOK

After weeks of heavy rain, the sun, and the stars, came out last night for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1st edition of the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BIFAN). The night kicked off in the early evening with the red carpet being rolled out for actors, directors, producers, and other film talents as they made their way into the glamorous event. Famous festival attendees included popular Spanish director Alex de la Iglesia as well as actress and Cannes award winner Jeon Do-yeon who, at this year's festival, will be the focus of a special retrospective of her film work titled "Contact".

Held in the lawn square in front of the majestic Bucheon City Hall building, this year's opening ceremony was hosted by Gangster High and Manhole actor Choung Kyung-ho and actress Jang Na-ra of Girls Revolution and Mr. Back.

Following the opening ceremony was a screening of the festival's opening film Room No. 7. Directed by Lee Yong-seung and starring festival red carpet attendees Shin Ha-kyun and Do Kyung-soo, the Korean dark comedy thriller held its world premiere before a packed house on a beautiful summer night.

The opening ceremony's overwhelming turnout should come as no surprise to people who have been following BIFAN the past several months. After moving to a new headquarters, and hiring additional

programmers to strengthen and expand the festival's offerings, BIFAN premiered this year with an energized spirit.

During the opening ceremony, Chairman of th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Chung Ji-young took the stage to say "Last year, we presented a new vision and launched a program to raise the depth and bring freshness to a program that was searching for various changes. I would like to ask for your encouragement and support for this year and I hope you enjoy the midsummer Fantasia in Bucheon."

With a theme of "Love, Fantasy, and Adventure", this year's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will run for 11 days and feature nearly 289 films from almost 58 countries.

The festival will conclude next Thursday, July 20 with an awards ceremony, followed by a screening of the closing film, the Japanese, manga-based Gintama.

Though the festival technically ends next Thursday, festival-goers unable to see films the first time around should make a visit to Bucheon next weekend. In addition to the already programmed screenings, BIFAN will also offer surprise screenings, as well as awards screenings which will feature films that received awards at the closing ceremony.

Christopher Weatherspoon

Bad Black

Nabwana I.G.G. | Uganda | 2016 | 68min
World Fantastic Red

There's micro-budget, and then there's *Bad Black*. Allegedly shot with a production budget of \$200 USD, this over the top Ugandan action film is a practice in the absurd, yet is not totally unfulfilling.

The movie opens with Swaz (that's short for Schwarzenegger) robbing a bank, after which, he dies in a car explosion. An awkward transition later we cut to a young girl helping her grandmother. She later overhears someone telling her grandmother to get rid of her so she runs away from home and joins a gang with other outcast children. She eventually grows up to become *Bad Black*, a smooth criminal mastermind that can't be stopped. How *Bad Black* and *Swaz* are connected is anybody's guess, but if you've managed to stay with the film this far, you're obviously committed.

Director Nabwana I.G.G., who also served as the movie's producer, writer, editor, cinematographer, and special effects creator is clearly a fan of action films.

Though less than 70 minutes in length, *Bad Black* does begin to drag at points partially because of the non-stop (but funny) voice over commentary.

However the movie's insane (and sometimes dangerous) action sequences, fun dialogue, and over the top storyline should keep the attention of most for the movie's hour-plus running time. Those who make it to the film's ending will be rewarded with a resolution that makes it all worth it.

Christopher Weatherspoon



<Bad Black>

BIFAN has fans worldwide



Brazilian Filmmaker
Gilson Fagundes

Gilson Jose Fagundes is a filmmaker from Sao Paulo, Brazil who has recently moved to South Korea to continue his film career.

Chris: So you're from Brazil, how do you know about BiFan?

Gilson: A film that I had a part in making "The Skin under the Leather" was shown here in 2015. When I came to Korea I told myself I would definitely visit the Bucheon Fantastic Film Festival

Chris: Do you like Korean genre films?

Gilson: Yes absolutely I love Korean genre films. I think that they're strong, well made. I especially like how they tend to mix two genres. For instance, Park Chan-wook's "Thirst" was a mixture of horror and romance.

Chris: Is this your first genre film festival?

Gilson: No, this is actually my second. I have also attended the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of Porte Alegre (Fantaspoa) as well.

Chris: How does this compare?

Gilson: Porte Alegre (festival) is big like this festival but it tends to feature more films from Latin America.

Chris: What are you heading to see now?

Gilson: Actually I am on the way to see Lee Chang-dong's <말왕>. He is my favorite director and I'm excited because after the screening there will be a talk with the director and actress.

Chris: What has been your favorite part of BiFan so far?

Gilson: I really liked the VR Experience. That was my first time doing anything like that.

Christopher Weatherspoon



활시위를 당겼다하면 백발백중. 경기도 다양성 지원 사업 G-시네마 부스에 들르면 퀴즈도 맞추고, 양궁 실력도 뽐낼 수 있다. 퀴즈 난이도는 하. 부스 곳곳에 정답이 숨어있으니 눈을 크게 뜨시라. 선물도 준비되어 있냐고? 물론이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공포영화를 보고 지르는 비명소리가 아니다. 누가 누가 목소리가 큰지 자웅을 겨루는 이벤트다. 데시벨 측정기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순위를 매기니 큰 소리 내며 우기지 말자.

BIFAN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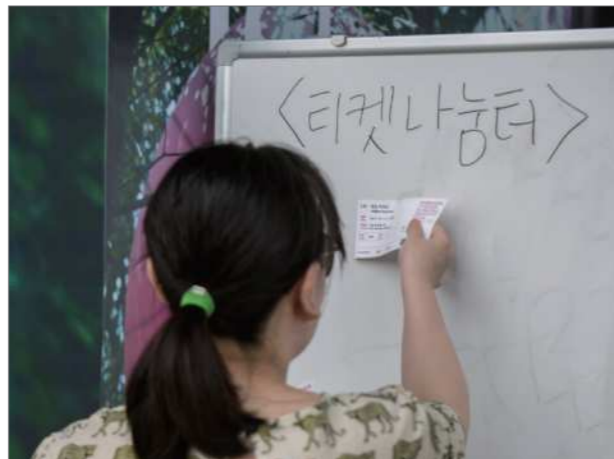
티켓 전쟁도 한숨 고르고! 예매 정보를 한눈에 알고 싶은 관객, 영화 상영 시간이 한참 남은 관객은 부청 시청 잔디광장에 들르시라. 티켓부스에서는 매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각종 부스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글 김성훈, 사진 백종현 · 박종덕 객원기자

눈치작전이 시작됐다. '예매 난민'을 자처한 관객들이 티켓부스 앞에서 사뭇 진지하다. 상영시간과 상영관을 꼼꼼히 보면서 티켓을 구매하시라. 티켓 부스 앞에서 당일 매진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티켓 경쟁은 치열해도 온정의 손길은 남아있다. 한 관객이 티켓 나눔터에 남긴 영화표를 챙겼다. 개인 사정 때문에 예매해둔 영화를 볼 수 없게 되면 상영관 곳곳에 설치된 티켓 나눔터에 붙여놓으면 좋겠다.



황토방에서 빚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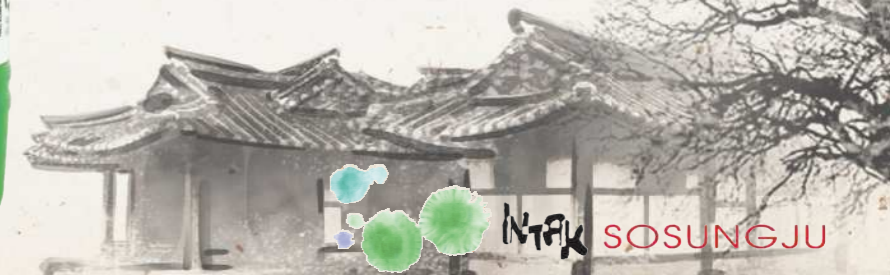
더욱 깊은 맛과 그윽한 향이 가득한 부드러운 그맛!

생 소성주는

인천탁주의 대표 막걸리입니다.



- 상품명: 소성주
- 원재료: 백미90%, 전분당 10%
- 규 격: 알콜분 6도
- 용 격: 750ml
-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C 이하에서 10일까지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CH		201 10:30 너의 이름은. Your Name. 107min / ㉔		213 13:00 가려진 시간 Vanishing Time: A Boy Who Returned 129min / ㉔		GV	227 16:00 칠패일 살인마 + 야수의 날 The Day of the Beast 115min / ㉔					253 20:00 미인어 The Mermaid 93min / ㉔		
FC		202 10:30 이어도 leoh Island 110min / ㉔		214 13:00 피도 눈물도 없이 No Blood No Tears 120min / ㉔			228 15:30 수리새 + 파랑새 *Surise+ Parangsae 63min / ㉔		스페셜토크 Special Talk 60min			254 20:00 야수의 후예 Heirs of the Beast 80min / ㉔		
HYU3		203 10:30 체리 리턴즈 Cherry Returns 89min / ㉔		215 13:00 커피 noir: 블랙 브라운 Coffee Noir: Black Brown 110min / ㉔		GV	229 16:00 일로순풍 Godspeed 112min / ㉔		241 18:30 려행 Ryeohaeng 86min / ㉔			255 21:00 미르산 Miruthan 106min / ㉔		
HYU4		204 10:30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85min / ㉔		216 13:00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92min / ㉔		GV	230 15:30 건방촌 The Village of No Return 116min / ㉔		242 18:00 숨속의 부부 THE END 105min / ㉔			256 20:30 공범자들 Criminal Conspiracy 120min / ㉔		GV
HYU5		205 10:30 검은 숲 속으로 Into the Forest 103min / ㉔		217 13:00 디어 시스터 Dearest Sister 100min / ㉔			231 15:30 무현, 두 도시 이야기: Final Cut *Moo-hyun, Tale of Two Cities - Final Cut 130min / ㉔					257 20:00 몬스터 프로젝트 The Monster Project 103min / ㉔		GV
HYU6	206 10:00 3월의 라이온 전편 March Comes In Like a Lion 135min / ㉔		218 13:00 3월의 라이온 후편 March Goes Out Like a Lamb 140min / ㉔				232 16:00 블러드랜드 Bloodlands 82min / ㉔		243 18:00 사월의 끝 The End of April 120min / ㉔			258 21:00 몬 몬 몬 몬스터 Mon Mon Mon Monsters 110min / ㉔		GV
HYU7		207 10:30 설녀 Snow Woman 95min / ㉔		219 13:00 뱀파이어 여친 길들이기 Vampire Clean Up Department 94min / ㉔		233 15:00 제일브레이크 Jailbreak 92min / ㉔			244 18:00 버드샷 Birdshot 116min / ㉔			259 20:30 연기의 중력 The Gravity of Acting 96min / ㉔		GV
BST1		208 10:30 바람의 색 Colors of Wind 119min / ㉔		220 13:00 인질의 극 Play of Hostage 115min / ㉔		234 16:00 Better Watch Out 85min / ㉔			245 18: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Fantastic Short Films 3 87min / ㉔			260 20:30 제너레이션 B Generation B 136min / ㉔		
BST2		209 10:30 루시드 드림 * Lucid Dream 101min / ㉔		221 13:00 유령 병원 Ghost Hospital 104min / ㉔		235 15:30 코드네임: 콜드워 Cold War 2 110min / ㉔			246 18: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Fantastic Short Films 11 89min / ㉔			261 20:30 더 빨리 푸시캣, 죽여라 죽여 Faster Pussycat! Kill! Kill! 83min / ㉔		
BST3		210 10: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4 Fantastic Short Films 14 88min / ㉔		222 13:00 가짜들 Pretenders 102min / ㉔		236 15:30 하이퍼소니아 Hypersomnia 82min / ㉔			247 18:00 데이브 미로 만들다 Dave Made A Maze 81min / ㉔			262 20:30 균열 Rit 111min / ㉔		
BST4		211 10:30 이단자들 The Heretics 87min / ㉔		223 13: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Fantastic Short Films 15 82min / ㉔		237 15: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6 Fantastic Short Films 16 80min / ㉔			248 18:00 부산행 - ScreenX 상영 Train to Busan - ScreenX Version 118min / ㉔			263 20:30 오디션 Audition 115min / ㉔		
BST5		212 10: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3 Fantastic Short Films 13 84min / ㉔		224 13:00 고양이처럼 Are We Not Cats 78min / ㉔		238 15:30 올웨이즈 샤인 Always Shine 86min / ㉔			249 18:00 원 데이 One Day 135min / ㉔			264 20:30 항문남녀 Assholes 74min / ㉔		GV
SS			225 13:00 생쥐야 어딴니? Owls & Mice 80min / ㉔			239 15:30 팀 탈러, 웃음을 팔아버린 소년 The Legend of Timm... 102min / ㉔			250 18:00 블랭크 13 Blank 13 72min / ㉔			265 20:30 사미블러드 Sami Blood 110min / ㉔		
SH			226 13:00 47미터 다운 47 Meters Down 87min / ㉔			240 15:30 집으로 가는 길 Way Back Home 131min / ㉔			251 18:00 스캔들 - 조선남녀상열지사 Untold Scandal 124min / ㉔			266 20:30 하녀 The Housemaid 106min / ㉔		
LS	야외상영 Outdoor Screening 20:30	268 슈팅걸스 Shooting Girls 97min / ㉔							252 18:00 인어공주 My Mother, The Mermaid 110min / ㉔			267 20:30 잉크의 맛 A Taste of Ink 80min / ㉔		
CH		심야상영 1 Midnight Screening 1 24:00		150 깊은 밤 갑자기 Suddenly in Dark Night 100min / ㉔			150 로우 Raw 99min / ㉔					150 항문남녀 Assholes 74min / ㉔		

[*] 표시가 있는 작품은 영자막 없이 상영됩니다. Films marked with [*]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등급 Rates ㉔ 전체 관람가 General ㉕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㉖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㉗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㉘ 청소년 관람 불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CH 부천시청 어울마당 FC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LS 부천시청 잔디광장 HYU3 CGV부천 3관 HYU4 CGV부천 4관 HYU5 CGV부천 5관 HYU6 CGV부천 6관 HYU7 CGV부천 7관 BST1 CGV 부천역 1관 BST2 CGV부천역 2관 BST3 CGV부천역 3관 BST4 CGV부천역 4관 BST5 CGV부천역 5관 SS 송내솔아트홀 OA 오정어울마당 오정아트홀 SH 소사어울마당 소향관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산다

World Top3
Cho Jung
ORIGIN OF SPARKLING WATER

초정탄산수

초정탄산수는 미국의 사스타 광천, 영국의 나폴리나스 광천과 함께 세계 3대 광천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초정리 광천수로 만든 제품입니다.

500 mL(0 kcal)

차익
보모록
카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 세계 3대 광천수 초정리 광천수 • 대한민국 최초 탄산수 •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등재 • 세종대왕이 사랑한 물

외화투자의 가장 쉬운 공식은?

¥€\$!

KB마이딜링룸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KB마이딜링룸을 검색해보세요!
(자세한 경로는 하단 참조)

간편하고 똑똑한 외화자산 투자파트너
KB마이딜링룸은

인터넷 : KB국민은행홈페이지 > 전체서비스 > 금융서비스 > 외환 > 마이딜링룸
모바일 : 스타뱅킹 > 전체메뉴 > 금융센터 > 외환/환율 > 마이딜링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외화자산 투자파트너 KB마이딜링룸이란?

투자 가능한 외화상품을 한눈에!
실시간 외환시장을 생동감 있게! 나의 외화자산 현황까지!

KB마이딜링룸의 대표서비스 KB환율픽(PICK)?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내가 원하는 환율로 외화를 PICK!
(예약)매매 주문하고, 거래가 체결되면 실시간 SMS 통지해주는
외화매매(시장가/지정가) 서비스

※ 통장(카드) 매매, 양도는 불변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사기 예방 대표통장 근절이 최선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0000)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305호(2017.4.17) / 관리번호 : K2017-028 / 게시기한 : 2018.4.18까지